



‘스포츠메카’ 영광군

동계 전지훈련 돌입

고교축구 21개팀 838명 스토브리그 개막



스포츠 메카 영광군은 동계 스토브리그 고교 축구대회를 시작으로 전지훈련 시즌에 돌입했다. 26일부터 새해 1월 5일까지 21개 팀 838명이 참가하는 동계 스토브리그 고교 축구대회는 스포티움 종합운동장 외 3개 경기장에서 펼쳐진다.

또한, 새해 1월 8일부터 20일까지 중·고 유도 스토브리그 1월 10일부터 21일까지 중·고 태권도 스토브리그 21일부터 27일까지 중등부 축구 스토브리그가 이어지며, 그 외에도 2월까지 축구, 테니스, 농구, 체조, 육상 등 5개 종목 7개 단일

전지훈련팀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동계 전지훈련 유치로 인하여 총 138개 팀 2,500여명(연인원 27,000여명)이 영광군을 방문함에 따라 27여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예상되며 연말연시 분위기 또한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타 지역에 비해 교통이 편리하고 기후가 온화하며, 풍부한 먹거리와 깨끗한 숙박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전지훈련의 최적지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방문객이 유입되어 연말연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면서 “우리 군은 찾은 선수단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경기장 시설완비 등 철저한 준비와 숙박·음식점 등의 친절 서비스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전지훈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스포츠신사업과(061-350-5252)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서희권 기자

신안군, 지방분권 대응전략 모색 세미나 개최

신안군은 22일 신안군청 공연장에서 지역민의 공감대 확산과 공무원의 이해증진을 도모하고자 ‘지방분권 시대, 신안군 대응전략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방분권 개헌 추진에 발맞춰

신안군의 지방분권 추진에 따른 능동적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각계 전문가와 군민,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을 시작으로 진행된 세미나는 이제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의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와 노민호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실행위원장의 ‘지방분권시대에 대비한 자치역량 강화 과제’라는 주제발표가 있었다.

신안=박웅식 기자

장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노력 ‘겹경사’

여성친화도시 지정 이어 양성평등정책 우수기관 선정

여성친화도시를 지향하는 장성군의 노력이 겹경사로 이어졌다. 장성군은 양성평등정책 추진 실적을 인정받아 최근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데 이어 전라남도로부터 양성평등정책 추진 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5일 2017년 여성친화도시로 장성군을 지정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여성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을 구현하는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장성군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꿈과 희망이 있는 여성의 도시~ 올로우시티 장성’을 슬로건으로 올 한 해 동안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을 기울였다.

더불어 장성군은 올해 양성평등 정책 추진 실적을 인정받아 전라남도로부터 양성평등정책 추진 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돼 장려상을 받았다.

장성=반정모 기자

광주형



광주형일자리는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우리시의 정책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혁신운동입니다.



일자리



광주형일자리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상생과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광주를 만듭니다.

빛그린산단에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연계한 「광주형일자리 선도 모델」 구축

보성군,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창구 설치

내년부터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근로자 월 13만원 지급

보성군은 내년 1월부터 정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이 지원되는 제도이다.

군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6일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읍·면에 안정자금 접수 창구를 설치했다.

또한, 이반장,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 등을 활용한 현장 중심의 일자리 홍보와 군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안정자금은 직원 수 30명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며, 지원은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해야 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한다.

신청은 4대 사회보험(연금, 건강·질병, 산업재해 보상, 고용)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 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할 수 있으며, 4대 공단 홈페이지나 고용부 홈페이지, 개설 예정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홈페이지 등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함평군, ‘성년 앞둔 나비축제’ 다양한 아이디어 모집

20주년 맞아 액스포 수준 격상해 대대적 개최

함평군이 성년을 맞는 내년도 나비축제를 한층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신규 프로그램, 홍보포스터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이달 29일까지 전시, 공연, 체험 등 관광객의 흥미를 유발하는 체험 중심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공모한다.

대상 1명에 200만원, 최우수상 4명에 각 50만원 등을 시상하며 미체택자에게도 축제입장권을 증정한다.

내년 1월 15일까지는 제20회 함평나비축제의 홍보포스터를 공모한다.

나비축제의 주제를 쉽고 친근하게 표현한 것으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공모신청서와 함께 작품사본을 그림파일(bmp, jpg 등) 형식으로 신청하면 된다. 수상작에 선정되면 원본파일(ai, pdf 형식, 300dpi 이상)을 제출해야 한다.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명에 200만원, 우수상 1명에 100만원을 각각 수여한다.

함평문화관광(www.hamyeong.go.kr/tou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작품과 함께 이메일(sm6409@korea.kr)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문화관광체육과(☎ 061-320-1782)로 문



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20주년을 맞는 내년 나비축제는 그 위상에 걸맞게 액스포 수준으로 격상해 개최할 예정”이라며 “온가족이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0회 함평나비축제는 내년 4월 27일부터 5월 7일까지 11일 간 함평엑스포공원에서 개최된다.

함평=김광춘 기자

구례군, 2017년 농촌진흥사업 평가 ‘최우수 기관상’

쑥부쟁이·산수유 등 지역자원 소득화 성과 인정받아



차산업 가공상품 비즈니스모델 경진 우수상(구례삼촌) ▲농촌지도사업 추진 유공공무원 표장(대통령 1명, 농촌진흥청장 2명, 전남도지사 3명) 등 2017년 한 해 동안 다양한 부문에서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박노진 구례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수상을 통하여 구례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공로와 우수성을 인정받아 매우 기쁘고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는 구례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농업인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밝혔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평가는 전국 156개 시·군 농업기술센터 중 2017년 역점 농촌 진흥사업, 시군 특수 시책 사업 등의 실적을 토대로

구례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1일 농촌진흥청에서 개최한 2017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회에서 영예의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구례군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계 교육훈련사업 우수기관상 ▲2017 국제농업박람회 우수상 ▲6